



Beyond Fair & Exhibition
Building Enhanced Family Experiences, BeFe



34th BeFe BABYFAIR

PRESS KIT

[자료 문의]

(주)베페 황동욱 주임 ☎ 010-5359-2714 / dawnhwang@befe.co.kr

플랜얼라이언스 권재희 부장 ☎ 010-6231-5771 / janekwon@planall.co.kr

행 사 개 요

The 34th BeFe BABYFAIR 8.23-26 | COEX

- **일시** : 2018년 8월 23일(목)~8월 26일(일), 10:00 ~ 18:00
- **장소** : 삼성동 코엑스 1층 Hall A/B(18,378m²)
- **규모** : 참가업체-180개사 950부스 380개 브랜드
관람객수-10만명 이상 예상(임신부, 아기엄마/아빠, 조부모 등 친지, 업계 관계자)
- **주최** : (주)베페
- **협찬** : 오브맘
- **후원** : 서울특별시
- **부대행사** : 베페몰 SNS 마켓, 국내바이어 유통상담회, 해외 바이어 수출상담회
- **전시 품목**

태교용품	태담, 태교 관련 도서, 음반
임산부용품	임부복 및 속옷, 피부보호제, 보조식품, 임산부의료기기
임산부 서비스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산후도우미
출산용품	의류, 침구, 영유아 전용 스킨케어 및 기타 용품
영유아식품	분유, 이유식, 생수, 음료수, 보조식품
영유아 서비스	제대혈은행, 스튜디오, 생활가전, 신생아보험, 베이비시터, 기념소품
안전용품	유모차, 캐리어, 카시트, 보행기, 안전용품, 웰빙아기방구미기제품, 유아침대, 영유아 가구
지능개발프로그램	놀이완구, 교육교재 및 프로그램, 플레이스쿨, 지능개발용품, 육아잡지
인터넷 서비스	임신, 출산, 육아, 여성관련 인터넷 정보제공 업체
기타	베이비 유기농·로하스 제품군, 유해환경 보호제품, 영유아용 아이디어 개발 상품

(주)베페(BeFe) 기업소개

(주)베페는 1999년 7월 설립되어 국내 최초로 개최한 임신 출산 육아용품 전시회를 포함 다양한 전시/컨벤션 기획 및 운영, 온라인 비즈니스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시/컨벤션 전문기업이다. 2011년 6월에는 임신 출산 육아 산업과 문화, 교육 사업을 아우르는 임신출산육아 토탈 브랜드로 진화하기 위해 '베페'라는 통합 브랜드를 발표하고, 사명도 (주)베페로 변경했다.



(주)베페는 기존 전시회인 베페 베이비페어를 기반으로 '온라인 베페', '모바일 베페', '베페몰', '베페 TV' 등 전시와 온라인 사업을 연계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베페 맘스쿨', '태교음악회' 등을 통한 임신 출산 육아 전반의 문화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면서 임신 출산 육아의 토탈 마케팅 브랜드로 자리매김해 왔다.

베페(BeFe)란?



베페는 'Beyond Fair & Exhibition', 'Building Enhanced Family Experiences'의 줄임말로, (주)베페의 고유 사명이자 상표권을 가진 브랜드명이다. (주)베페는 베페 베이비페어 전시회를 넘어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새로운 문화와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 기업으로 점차 발전해 가고 있다.

(주)베페는 '베페 베이비페어'의 주최사로 2000년부터 2018년 2월까지 총 33회에 걸쳐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특히 제 17회 이후부터는 매회 평균 1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는 국내 최고·최대 규모 전시회로 성장해왔다. 오는 8월 23일 개최되는 제34회 베페 베이비페어에도 180개사 950부스, 350여개 브랜드가 참여하며 기존의 명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베페 베이비페어는 국내 퍼블릭 전시회 중에서 최초로 국제 전시 협회인 UFI(The Global Association of the Exhibition Industry) 국제인증을 획득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한국 전시산업 발전 대상' 우수 브랜드 전시회 부문에서도 최우수상을 3회 수상하였다.

(주)베페를 이끌고 있는 이근표 대표이사는 지난 2009년 국내 전시산업 선진화에 공적이 현저한 모범 경영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1회 전시산업발전유공자 포상'에서 공로상을 수상했고, '제50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는 전시업계 대표로 산업포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러한 성과는 베페 베이비페어의 성공을 기반으로 베이비 포털 사이트, 온라인 쇼핑몰, 임산부 교육까지 그 분야를 확장 시키며 육아산업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을 이어가고 있는 (주)베페의 집념이 이뤄낸 성과다.

1991년부터 10년간 전자신문사에 근무하면서 탁월한 기획력으로 각종 IT전시회, 컨퍼런스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기여해 온 이근표 대표. 그는 1999년 (주)베페를 설립, 베페 베이비페어를 기획해 참신한 운영과 적극적인 홍보/마케팅 활동으로 전시문화를 주도하고 있다.

베페는 연중 언제 어디서나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정보를 얻고 관련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와 쇼핑몰인 베페몰(mall.befe.co.kr)을 운영 중이며, 각각 2014 웹사이트 Award와 웹어워드 코리아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국내 전시사업 및 웹 비즈니스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게 되었다. 이어 2014년 7월에는 인터넷 방송 '베페TV'를 개국하며 전시와 온라인 사업을 연계한 새로운 서비스로 기존 고객들의 만족도를 더욱 높여가고 있다.

(주)베페(BeFe) 주요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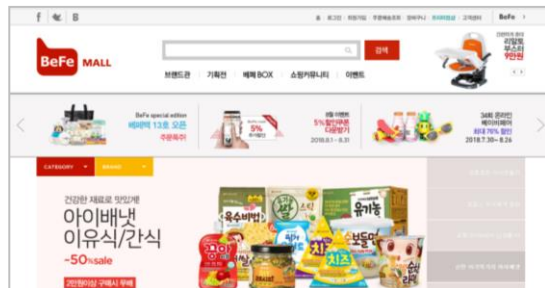
- 전시·컨벤션 관련 종합 서비스로 국내 전시산업의 리딩 기업으로 자리매김
- 임신·출산·육아용품 멀티 플랫폼 '베페 온라인', '베페 모바일' 운영
- 임신·출산·육아 관련 트렌드와 정보 전달하는 '매거진 <베페>', '웹진 <베페>' 발행
- 예비맘 위한 교육 프로그램 '베페 맘스쿨', '태교 음악회' 등 각종 문화행사 활발

국내 임신 출산 육아용품 전시회의 새 역사 쓰다

(주)베페(대표 이근표, www.befe.co.kr)는 1999년 7월 설립되어 다양한 전시회 주최, 전시·컨벤션 기획 및 운영, 온라인 비즈니스 등 전시·컨벤션 관련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시·컨벤션 전문기업이다. (주)베페는 2000년부터 '베페 베이비페어'를 33회에 걸쳐 개최하며 이제는 매회 평균 1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는 국내 최고·최대 규모 전시회로 성장시켜 왔다. 이처럼 우수한 전시 운영 노하우와 고객 서비스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한국 전시산업 발전 대상' 우수브랜드전시회 부문에서 2008년, 2009년, 2011년 최우수상을 받는 등 국내 전시산업의 리딩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2014년 2월에는 국내 퍼블릭 전시회 중에서 최초로 국제 전시 협회인 UFI(The Global Association of the Exhibition Industry)의 국제인증을 획득했다.

임신출산육아 멀티 플랫폼, 베페 웹사이트와 베페몰 운영

베페는 지난 2007년 8월 임신, 출산, 육아용품 전문 플랫폼인 베페 온라인 사이트를 오픈했다. 전시회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관련 기업과 관람객들이 1년 365일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육아를 하는 부모들의 육아용품 정보에 대한 니즈를 충족하고, 육아용품 시장을 활성화시켰다.



특히 베페 홈페이지에서 유·무료 체험단 이벤트, 브랜드보드 및 신상품 소개 페이지 등 소비자들이 구매 전 제품을 직접 체험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정보 제공 및 선택의 폭을 더욱 넓혔다. 뿐만 아니라 2009년 1월에는 온라인 쇼핑몰인 베페몰을 오픈하여 신상품전, 체험 상품전 등 다양한 기획전을 진행해 소비자들에게 전시회만큼의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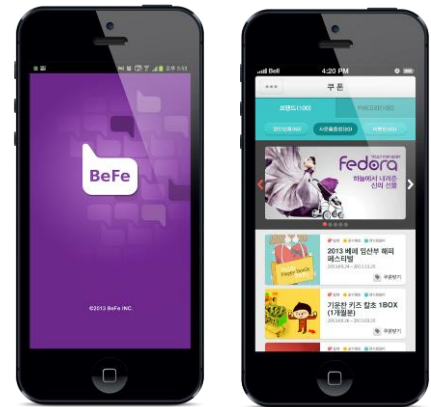
이처럼 다양한 창구를 통해 소비자들은 임신 출산 육아 교육에 대한 다양한 상품과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고, 육아용품 공동구매와 여러 이벤트를 통해 좋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도 있다. 베페 베이비페어 참가기업은 전시를 통한 사전/사후 마케팅이 가능해지면서 참가 효과가 점차 극대화됐다.

주최사인 베페는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여 피드백을 얻을 수 있어 브랜드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매년 베페 웹사이트 회원 수 및 방문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누적 회원 105만여 명의 온라인 회원을 보유하고 있어 참가 기업들의 홍보 효과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베페몰의 경우 사용자가 보기 편하고 브랜드, 사용자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메뉴 등으로 지난 2013년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KIPFA)가 개최한 '웹어워드 코리아'에서 종합 쇼핑몰 부문 대상을 받기도 했다. 베페몰은 이제 단순 쇼핑 플랫폼을 넘어 커뮤니티 쇼핑공간의 장으로 특히 모바일 및 태블릿 PC 사용에 익숙한 베페몰 고객을 위해 어느 디바이스에 관계없이 쉽고 편하게 쇼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된 것이다.

베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런칭

베페 베이비페어 방문자 중 모바일 회원으로 입장한 방문객은 2010년 초기 앱 출시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모바일을 통한 입장객은 약 44%로 초기 17%에서 약 2.5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2017년 기준) 현재 안드로이드 및 애플 버전 모두 운영 중이며 행사기간 내 고객은 이벤트, 상품할인, 상품증정 등 다양한 브랜드의 쿠폰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또 어플리케이션 내 탑재된 전시회 안내 지도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브랜드를 손쉽게 찾아 관람할 수 있어 편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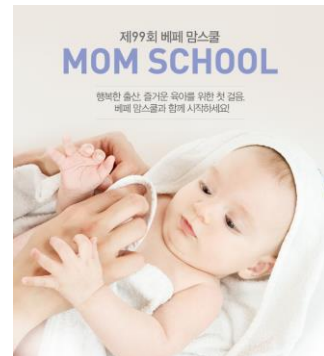
베페TV 홈쇼핑 인터넷 방송 런칭



2014년 7월, 베페는 임신 출산 육아 교육 정보를 많은 부모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 방송 채널인 '베페TV'를 개설했다. 베페는 육아용품 판매는 물론 예비맘과 초보맘들을 위한 육아정보를 공유하는 등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다.

베페가 진행하는 임신출산 육아관련 문화사업

지난 2007년 10월 처음 개최된 이래 현재까지 총 98회 (2018년 8월 기준) 진행된 '베페 맘스쿨'은 매회마다 국내외 임신, 출산, 육아 분야 의사와 전문가가 함께하며 현재까지 약 4만 2천여 명의 임신부가 거쳐 간 교육과정이다.



베페 맘스쿨은 매월 400명의 임신부와 예비 부모를 초청해 진행하는 임신·출산·육아 관련 무료 강좌이다. 베페 맘스쿨은 신생아 육아법을 비롯 임신부가 궁금해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400명 모집에 매회 2500여 명 이상이 신청, 선정 인원 중 90% 이상의 참석률을 보이는 등 예비 엄마들의 입소문을 타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외에도 2011년 7월, 미혼모 돕기 성금 모금을 위한 베페 나눔 유모차 콘서트를 시작으로, 임신부를 위한 태교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임신출산 육아관련 트렌드와 정보를 전달하는 '베페 매거진', '베페 웹진' 발행



베페는 연 2회 동명의 매거진 '베페(BeFe)'를 발행하고 있다. 2012년 8월 창간한 베페 매거진은 관람객 편의를 위해 전시회 전용 매거진으로 등장, 전시회 참여 브랜드 소개, 육아 콘텐츠, 육아용품 화보와 참가기업 브랜드 제품 구매 시 사용 가능한 각종 쿠폰을 동봉한 모습이었다. 유아용품부터 패션, 뷰티, 문화예술, 가전, 리빙제품에 이르기까지 에디터들이 추천하는 신제품 및 리뷰를 매거진 리포트로 만나볼 수 있는 것도 프리미엄 육아 정보 매거진 '베페(BeFe)'의 매력 중 하나다.

특히 베페 매거진에는 신제품 정보 및 대형 전시장 지도와 참가 기업 브랜드의 추가 할인 쿠폰북을 수록해 전시장 내 제품 구입 시 실질적 혜택도 제공한다. 2018년 8월 코엑스에서

열리는 34회 베페 베이비페어 입장 시에도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또한 베페 매거진과 함께 2012년부터 발행된 웹진 '베페(BeFe)'는 임신 출산 육아관련 정보 및 최신 트렌드를 담아 매월 베페 온라인 사이트 회원을 대상으로 발행된다. 구독 희망자는 베페 홈페이지에 가입 시 기재한 이메일로 웹진을 받아볼 수 있으며, 홈페이지 내 웹진 베페 메뉴를 통해서도 콘텐츠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베페가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매거진'베페(BeFe)'와 웹진'베페(BeFe)'는 실제 예비엄마·아빠 및 육아중인 부모로 구성된 베페 명예기자들이 육아관련 진정성 있는 콘텐츠를 담는 것이 특징이다.

해외진출 통한 국내 유아용품 수출 촉진 및 유망기업 판로 개척 지원

베페 베이비페어는 국내를 대표하는 유아전시회를 넘어, 세계 속에서도 주목 받는 전시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해마다 전 세계 메이저급 유아용품 브랜드들의 상품개발자와 CEO들이 찾고 있으며, 베페는 이러한 전시회 노하우와 명성을 바탕으로 유아용품의 수출 및 해외진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베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함께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2018 중국 상하이 유아산업 전시회(CBME China 2018)'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한국관'을 구성, 3700만 달러의 상담 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CBME China 에는 5년 연속 참가했으며, 지난 1월에는 2017 홍콩 'Baby Products Fair' 에서도 최초로 '한국관'을 구성해 운영하며 그 위상을 넓힌 바 있다. 또한 지난해 9월에는, 유럽 최대의 유아용품 박람회인 독일 쾰른 유아 및 아동용품 전시회(Kind + Jugend 2017)에서도 '한국관'을 주관하여 아시아를 넘어 유럽시장까지 그 영역을 확장했다. 이처럼 앞으로도 베페는 국내 우수 유아용품 업체들의 해외진출 및 수출증대를 위한 노력을 펼쳐 향후 다양한 국가에서 행사를 개최해 전시 수출 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베페는 유아용품 업계의 내수시장 활성화는 물론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기업간 거래(B2B) 서비스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에 제31회 베페 베이비페어에서는 유아용품전시회 최초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8개국 41개사가 참가한 수출상담회에서는 기존 해외 유아용품 박람회 참가 때보다 높은 계약 실적을 나타내며, 약 7800만 달러 이상의 현장 수출상담 실적을 달성했다. 오는 34회 베페 베이비페어에서는 서울시 지원으로 전시기간 4일 동안 중화권 바이어와의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가 개최되는 한편, 참가기업에 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국내 유통 판로 개척에 기여하고자 '국내바이어 유통상담회'도 개최한다. 업계 최초로 진행되는 본 상담회에는 백화점, 면세점, 홈쇼핑, 온라인몰 등 20개사 24명 규모의 바이어가 참석하여 45개의 전시회 참가사와 총 135건의 비즈니스 상담을 23, 24일 양일간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글로벌전시회를 육성하고, 해외바이어의 참가·상담을 통한 국내 중소기업과의 수출 연계를 위해 2018년도 국내전시회 개최지원 대상사업 선정계획을 공고했으며, 이에 베페 베이비페어가 해당 공고의 유망전시회로 선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의 후원을 받게 됐다. 이를 계기로 베페는 중소기업에 효과적인 수출 마케팅 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국제 비즈니스와 교류의 장소로서 해외바이어가 찾아오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전시회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베페 베이비페어가 전하는 “대한민국 육아 트렌드”

올바른 임신·출산·육아 문화를 만들어가는 기업 (주)베페는 연 2회 관련 전시회를 개최하며, 해당 시기 국내 육아분야 현상을 분석하고 트렌드를 주도하는 역할을 도맡아왔다. 최근 5년간 베페 베이비페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대한민국 육아시장 현황을 정리하고, 2018년 육아 트렌드를 미리 살펴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연도	회차별 육아 트렌드	
2013년	23회(2013.02)	24회(2013.08)
	“알뜰소비”	“프렌디”
	불황으로 전반적인 소비가 위축되며 육아용품 소비 트렌드 역시 가성비가 중시되는 패턴으로 변화	아빠육아가 주목 받으며 친구 같은 아빠에 대한 이슈 증가와 아빠 육아를 돕는 육아용품 출시
2014년	25회(2014.01)	26회(2014.08)
	“팸 육아, 조부모 육아”	“공유 육아 + 8-pocket”
	젊은 부모 세대의 사회 경제적 문화적 환경 변화로 다시 떠오르는 황혼 육아, 육아 주체의 확장	부모, 조부모부터 삼촌, 이모까지 온 가족이 돕는 육아
2015년	27회(2015.02)	28회(2015.08)
	“옴니 육아”	“안심 육아”
	다양한 주체, 다양한 채널, 다양한 기능의 제품으로 육아환경 변화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육아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
2016년	29회(2016.02)	30회(2016.08)
	“Baby Effect”	“Family Balance”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아이로 인해 파급되는 경제 사회 문화적 긍정 효과	아이의 탄생으로 다시 필요해지는 가정 내 균형, 행복한 육아의 시작
2017년	31회(2017.02)	32회(2017.09)
	“팩트육아”	“육아있는 삶, 볼로(B.O.L.O)라이프”
	육아 정보의 홍수 시대, 팩트를 적극 추구하는 육아로의 변화	아이만이 줄 수 있는 새로운 경험에 주목하며 일상 속의 참된 보람 추구
2018년	33회(2018.02)	34회(2018.08)
	“베페 케어”	“힙한 육아”
	임신, 출산, 육아, 교육 등 아이의 성장단계에 따라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 제공	SNS를 적극 활용, 나만의 개성 있는 육아 라이프를 추구하는 트렌드 등장

“베페도 힙(hip)해졌다! 힙한 육아 트렌드 경험하러 오세요”

제34회 베페 베이비페어 개최... '힙한 육아' 선보인다

- 오는 8월 23일(목)~26(일)까지 4일간 코엑스에서 개최
- 개성파 부모들의 육아 스타일 반영한 트렌드 키워드로 '힙한 육아' 제시
- 업계 최초 힙한 육아용품 모은 'SNS마켓' 열고, '나만의 힙한 육아' 경품 이벤트 등 진행
- 전시 기간 4일 동안, 14개 육아 브랜드 참가해 육아 관련 특별 강좌 제공하는 '브랜드클래스' 진행

㈜베페 주최 국내 대표 임신·출산·육아 박람회 '제34회 베페 베이비페어'(이하 베페)가 코엑스에서 오는 8월 23일(목)~26(일)까지 개최된다.

베페는 국내외 임신·출산·육아·교육 관련 350여개 브랜드를 한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박람회로,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국내 유통 상담회' 등의 동시 개최를 통해 참가 기업들의 육아용품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대표 유통 플랫폼으로도 자리잡았다.

특히 이번 베페는 육아에서도 자기만의 취향과 스타일을 추구하는 젊은 부모들이 많아지고 있는 최근의 흐름을 반영, '힙한 육아'를 핵심 트렌드 키워드로 선정하고 관련 행사와 이벤트 마련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우선, 인스타그램에서 개성 있는 육아용품 판매로 품절대란 인기를 얻고 있는 셀러(Seller)들을 베페에 초대한 '베페몰 SNS마켓'을 업계 최초로 연다. 핫한 육아용품들을 한자리에서 비교하고 통큰 할인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힙한 육아를 주제로 한 '나만의 힙한 육아' 온라인 공식 경품 이벤트 진행도 한창이다. 8월 26일까지 베페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본인이 생각하는 '힙한 육아'의 정의를 댓글로 남기면 추첨을 통해 총 141명에게 유모차, 카시트, 유아 식탁의자 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한다.

현장 방문객들을 위한 선착순 선물 증정 이벤트도 준비돼 있다. 평일 선착순 입장객 총 4000명에게 식물성 스킨케어와 기저귀 봉투가 포함된 알레바x파마코튼의 '트래블세트'를 증정한다. 또한, 임산부 중 선착순 총 2000명을 대상으로 산모수첩 또는 진료카드 지참 시 미국 동화작가 에릭칼의 그림에 최고급 솜과 원단을 사용한 리틀포레스트 '에릭칼 아기베개' 또는 부드러운 촉감과 대나무 자연향균향취 작용이 특징인 밤부베베 '올인원 수유베개'를 축하선물로 제공한다.

한편, 이번 제34회 베페 베이비페어 전시 기간인 4일 동안 코엑스 B홀 내에서 총 14개 육아 브랜드가 알짜 육아 정보만 담은 무료 강좌 '브랜드클래스'를 진행한다. 모두 수유부터 아기 수면관리

등 임신·출산·육아 관련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와 노하우를 전수한다. 예를 들면, 8/25(토)에 예정된 똑계육아의 <아기에게 꿀수면 선물하기! 똑계육아 앱 시연회>에서는 국내 최초 국제수면전문가로 현 똑계육아 연구소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준희 작가가 영유아 꿀잠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들을 오랜 노력 끝에 개발한 앱을 선보이고, 구체적인 사용법 설명을 통해 아이를 현명하게 잠재우는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다.

㈜베페 관계자는 “취향에 맞는 육아용품을 구입하고, SNS를 통해 육아 일상을 공유하면서 나만의 육아 스타일을 추구하는 ‘힙한 육아’가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번 제34회 베페 베이비페어는 업계 최초 SNS마켓 입점 등 힙한 육아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와 혜택 중심의 실속 있는 프로모션 등을 대거 선보일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끝]**